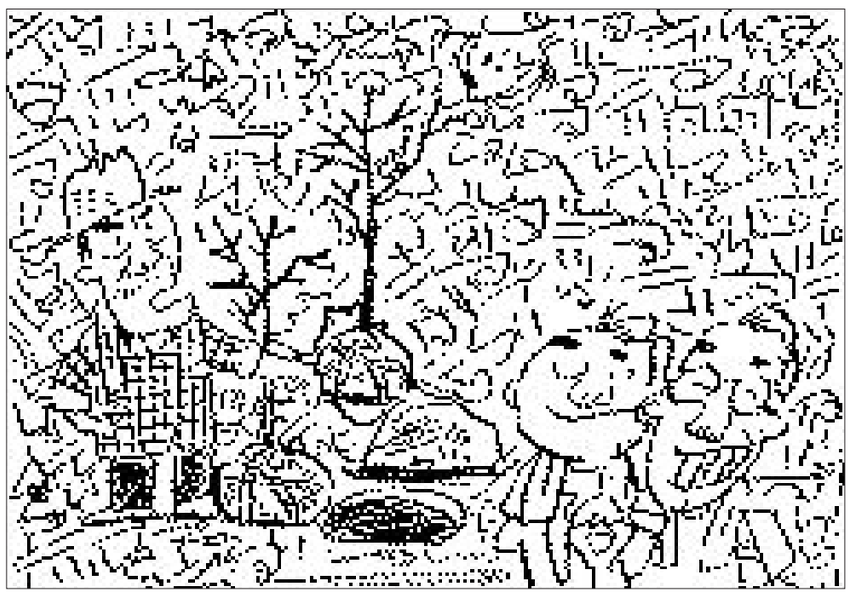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105 >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열대어, 바늘, 셔틀콕, 고추, 은행잎, 종이배, 송사리, 사람 옆 얼굴

우리나라 공무원 아닙니다

어느 행인이 도시의 보도를 따라가며 일하고 있는 두 명의 시 공무원을 보았다.

그는 둘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공무원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두 분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구멍을 파면 다른 사람이 다시 구멍을 메우는 것 같은데…"

공무원 중 한 명이 설명했다.

"중간에 나무를 심는 일을 맡은 사람이 오늘 아파서 결근했거든요."

지난주 정답

새집, 송사리, 프라이팬, 고추, 열대어, 다리미, 셔틀콕, 음표, 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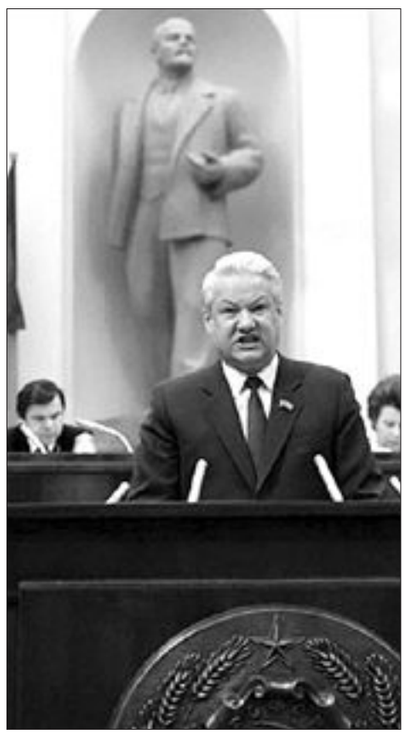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나금례〈광주시 서구 쌍촌동〉 정동익 〈여수시 학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3일 미소 '2단계 전략무기감축' 조인



지난 1993년 1월 3일 미국의 조시 부시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무기의 대폭 감축에 합의하는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SALT)에 서명했다. START Ⅱ의 조인은 미·소 냉전의 정식적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러 양국의 새로운 전략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틀이 됐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은 지난 1982년 6월 미소 양국이 전략무기의 감축을 위해 제네바에서 시작한 협정으로 1970년에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의 후신이다.

1982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전략무기협상을 재개하면서 회담의 명칭을 START로 변경하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대폭적인 감축을 제안했다.

SALT를 토대로 총 무기수의 감축을 생각했던 소련이 미국의 제안이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폭삭감을 겨냥한 일방적인 안이라고 반발하면서 1983~1985년에 교섭이 중단됐다.

1986년에 재개된 협상은 1991년 7월에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와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핵무기를 향후 7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하기로 동의하면서 협정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1992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협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소련의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4개 핵보유국이 협정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타결되었다.

1993년 1월에는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상(START Ⅱ)에 서명하면서 2003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500기 정도로 줄이고, 잠수함발사미사일도 1,750기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3년에는 양국 대통령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Ⅰ)에 따라 지금까지 양국에 보유가 허용된 6천 기의 전략 핵탄두 수를 2012년까지 1천700~2천200기 선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 전략적 안정과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국제 테러 근절·양국 교류 확대 등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흰옷 빨래' 이렇게 해보세요

옷에 세제가 남아있으면 변색 되기 쉽기 때문에 흰옷 빨래는 헹구기가 중요합니다.

▲누렇게 된 셔츠를 삶을 때 달걀 껍질을 거즈에 싸서 넣어주면 빨래 끝~.

▲흰 빨래를 삶고 나서 쌀뜨물에 헹구듯이 몇 번 주물러 주면 한결 윤이나고 하얗게 됩니다.

▲뜨거운 물에 레몬즙이나 잘게 썬 레몬을 몇 조각 넣고 누렇게 변색 된 옷을 하루 정도 담가두었다가 빨래해보세요. 천연 표백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밀감껍질을 말려두었다가 끓인 물에 담가두었도 효과가 있답니다.

▲흰 옷에 풀물이 들었을 때 비눗물로 세탁한 뒤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수를 화장지나 헝겊에 묻혀 풀물이 든 곳에 가볍게 두드려 주면 깨끗해집니다.

▲자주 입는 흰 티셔츠는 빨래 하기 전에 소금 1/2 작은술을 녹인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변색을 막을 수 있고 많이 빨아도 옷감이 덜 상한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1월 24일 辛丑)

子 36년생 천지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해가 없다. 48년생 구사가 신사로 바뀌어서 괴로움을 주는 형상이다. 60년생 친척간의 불상사로 연결 될 수도 있다. 72년생 옛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84년생 침체가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7

丑 37년생 직장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전쟁이 발생한 형국이다. 61년생 가내 내분과 부부 언쟁이 발생할 수 있다. 73년생 유쾌한 형상이고 길사로 연결 된다. 85년생 처음 흉은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길사로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07, 40

寅 38년생 겨울날 언 땅을 만나는 형상이니 개운치 않다. 50년생 형제 친척으로부터 말썽이 튕겨져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62년생 내 것 잃고 누명쓰는 꼴이다. 74년생 부부사이에 소사 냉전을 조성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4

卯 39년생 정중동하나 결과가 불미할까 두렵다. 51년생 문서로 인한 기만과 사기를 조심하라. 63년생 친구 형제로 인한 고통이 발생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75년생 여행을 삼가하고 현 위치에서 만족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辰 40년생 문서로서 사기 당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52년생 침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64년생 아랫사람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라. 76년생 고생이 발생하고 될 듯한 계획이 지연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巳 41년생 뒤처리를 할 사람이 나타나 마무리를 한다. 53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동참할까 두렵다. 65년생 주변의 꼬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새싹이 찬 서리를 만나는 형상이라 매우 조심을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5

午 42년생 겉은 조용한 듯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54년생 직장생활의 침체와 재물의 불편이 얼어붙은 형상이다. 66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큰 득도 없다. 78년생 이성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1, 25

未 43년생 좋은 일보다는 흉사가 중복 된다. 55년생 땅은 얼어붙어 있으나 앞일은 희망차다. 67년생 고역이 가중된 형상이다. 79년생 대고는 없으나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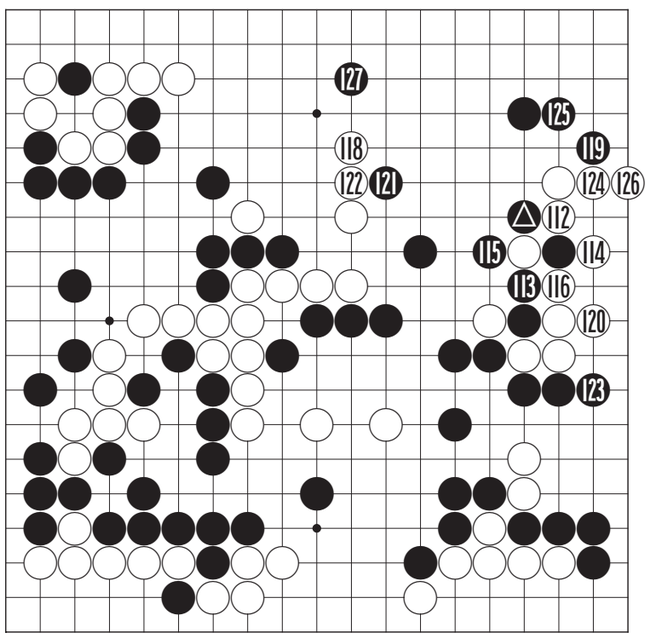
申 44년생 주변의 시끄러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56년생 옛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신생된다. 68년생 시비의 발생이 우려되고 구설수가 있다. 80년생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하는 일이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酉 45년생 주변 내고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남편과 자녀에게 불리한 입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 6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있으나 배인 편에 간접상이 있을 수도 있다. 81년생 큰 투자는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04, 44

戌 46년생 식물이 비료를 받는 듯 모든 일이 순조롭다. 58년생 안도의 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70년생 마지막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82년생 길사가 계속되나 침체는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7, 29

亥 47년생 새싹의 고통은 어쩔 수 없듯이 감수하라. 59년생 남여사이에 숨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71년생 눈물 날 일이 생겨 날 수도 있다. 83년생 부부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발생하니 많은 조심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88회 전국체전 남녀 페어부 결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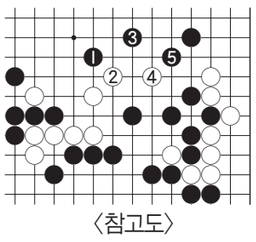
땅바닥을 기는 굴욕

8보(112~127)

白 이용희 6단 이선아 6단 (서울)

黑 홍석의 7단 김지은 6단 (전남)

백이 우변에서 한 칸을 더 많이 벌리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흑 ▲로 젖힘을 당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수로 인해 백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변을 살리기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중앙의 거대한 미생마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참고도〉

결국 서울팀은 장고 끝에 112,114로 땅바닥을 기는 최악의 수단을 들고 나온다.이같이 빵때림을 주고 이선을 넘는 방법은 죽기 직전의 위급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둘 수 없는 굴욕이다. 그만큼 상황이 곤란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진 전남팀이 여기에서 약간 느슨해진다.흑 117로 이은 수가 매우 때릴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있다. 이 수로는 즉각 '참고도'의 흑 1로 모자를 씌워 공격할 자리로 5까지면 그야말로 지옥이다. 백 118로 뛰어 나가고 126까지 살아서는 비참하지만 목숨을 연장하고 있다.흑 127이 아픈 자리다.117-이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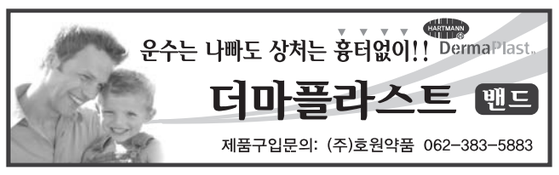
2007 최우수 기사는 누구?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세돌·이창호 9단이 오는 4일 열릴 한국기원 선정 '2007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사' 영예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세돌은 지난해 승률왕(81승 23패·78%)과 연승왕(24연승)에 올랐고, 이창호는 중환배 제패, 왕위전 및 바둑왕전 우승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신흥 강자 박영훈 9단도 GS칼텍스배에서 이세돌을 눌렀지만 3개 타이틀에 그쳐, 이세돌·이창호에는 못 미치는 형국.

이세돌이 최우수기사에 오르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지금까지 네 번째 이 상을 거머쥐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67>

I learned by myself

저 혼자서 터득했습니다

A : You are a good swimmer.
B : Thank you. I can only do the breaststroke.
A : Did you take lessons?
B : No, I learned by myself. I like swimming.
A : I do, too. It's a good exercise, but I prefer to swim in the ocean. It feels better.

A : 자네 수영 잘 하구만.
B : 감사합니다. 겨우 유영 밖에 못하는데요.
A : 지도를 받았나?
B : 아닙니다. 저 혼자서 터득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A : 나도 그렇다네. 좋은 운동이지. 하지만 큰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더 좋아한다네. 기분이 훨씬 좋거든.

* I prefer to swim in the ocean.
= I prefer swimming in the ocean.
= I like swimming in the ocean better
* I like swimming.
= I like swimming.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067>

授業(じゅぎょう)は何時(なんじ)からですか。

수업은 몇시부터 입니까?

A : 金さん、授業(じゅぎょう)は何時(なんじ)からですか。
B : 授業(じゅぎょう)は午前(ごぜん)九時(くじ)半(はん)からです。
A : あ、まだ時間(じかん)がありますね。今度(こんど)のテストはいつですか。
B : 今度のテストは五月(ごがつ)十四日(じゅうよっか)です。

A : 김씨, 수업은 몇시부터 입니까?
B : 수업은 오전 9시반부터 입니다.
A : 아, 아직 시간이 있군요. 이번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B : 이번 테스트는 5월14일 입니다.

授業(じゅぎょう) : 수업
講義(こうぎ) ; 강의
まだ : 아직, 아직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4>

周末你有时间吗？

주말에 너 시간 있어?

A: 周末你有时间吗？
zhōumò nǐ yǒu shí jiān ma?
쪼우 뭐 니 요우 스쩨엔 마?

B: 没有，我要去打工。
méiyǒu, wǒ yào qù dǎgōng.
메이요우, 워 야오 취 다꽁.

A: 周末也打工？不累吗？
zhōumò yě dǎgōng? bú lèi ma?
쪼우모 예 다꽁? 부 레이 마?

B: 很累。
Hěn lèi.
헌 레이.

A: 주말에 너 시간 있어?
B: 없어, 일 하러 가야돼.
A: 주말에도 일해? 안 피곤해?
B: 피곤하지.

周末 [zhōumò] 주말
时间 [shíjiān] 시간
打工 [dǎgōng] 일하다, 아르바이트하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84>

水落石出(수락석출)

물 수, 떨어질 락, 돌 석, 날 출

수락석출(水落石出)은 물이 빠지니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본래는 겨울강의 정취를 읊은 것이지만, 어떤 일의 흑막이 걷히고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비유한다.

소동파(蘇東坡)라고 불리는 소식(蘇軾, 1036~1101)은 북송(北宋) 신종(神宗)때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다가 호북성(湖北省) 황주(黃州)의 동파(東坡)라는 곳에 좌천되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주변의 명승지를 유람하였는데, 적벽(赤壁)을 찾아 2수의 부(賦)를 지었다.

이 적벽은 삼국시대의 적벽대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소동파는 적벽대전을 생각하며 7월 여름밤에 '전적벽부'를 짓고, 3개월 뒤 음력 10월에 '후적벽부'를 지었다.

그 '후적벽부'에서 늦가을 적벽의 모습을 묘사하길, "흐르는 강물 소리, 깎아지른 천 길 절벽. 우뚝 솟은 산과 작은 달, 물이 빠져 드러난 바위(水落石出). 해와 달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이리도 강산을 알아볼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락석출은 본래 물가의 경치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물이 줄어들어 돌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물의 실상이 드러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가 되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